

# 建築에 있어서 Total Design 의 概念에 관하여

金 熙 春 (서울工大教授)

## 1. Total Design 의 概念

創造되는 것으로서 보다 生産되는 것으로서 建築行為의 價値를 파악하고자 하는 흐름이 現代 建築界의 일각에서 高潮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어떠한 建築物이 얼마나 獨自的인 創造性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물음보다는, 建築物에 관한 社會的, 自然的, 機能的, 美的인 諸般의 複合的인 要求들에 대한 回答으로서, 建築物의 可視的, 非可視的인 모든 부분들의 내용이 얼마나 完備한 技術적 一貫性을 가지고 처리되었는가 하는 것이 價値判斷의 要諦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建築物에 있어서는 感愛性的의 對象으로서의 空間의 質의 내용들은, 合理的인 空間構成 및 構築方式의 한 결과로서의 副次的인 위치에 처해진다. 대규모의 建築物을 바람직한 期間안에 바람직한 內容을 가진 것으로 設計해내기 위해서 體系化한 設計者 組織의 의해서 새로운 概念의 設計方法論이 채택되기도 한다. 設計者 組織 또한 建築家를 중심으로한 아프리카의 概念으로부터 多數의 建築家에 의한 協同體, 혹은 經營組織의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경향이 現代建築의 全般的인 흐름을 유도할만한 「ISM」의 意味로서 斷定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60年代 以後에 있어서의 現代建築의 多樣한 樣狀한 過渡期的 展開一路에 있어 아직은 歷史의 斷面으로 評價할만한 烏敢의 眼目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여하튼 이러한 一連의 傾向들——다시 말해서 複合的인 內容을 갖는 大規模建築物의 組部에서 全體에 이르는 設計業務의 全域에 관하여 體系化된 業務組織으로서 加급적 安全한 結論에 到達될 것을 追水하는 方法論은 흔히 Total Design이라는 개념으로써 要約된다.

## 2. 設計業務의 方法論으로서의 Total Design

Total Design이라고 하는 개념어휘의 根源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或者에게는 그것이 現代建築의 Design의 한 傾向으로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이다.

Total Design이란 미국 로스엔젤레스市를 據點으로 한 WB&A(Welton Becket & Associates) 設計組織에 의한 設計業務處理方式의 標榜된 理念이다.

따라서 Total Design의 概念은 建築創造의 分野에서 時代精神을 이끌고자 하는 先導的 建築家의 知的 鎮痛的 한 結晶이라기 보다는 商業主義에 基盤을 둔 大型設計組織에 의해서 標榜된 理念이라는 데에서 國際主義, 라든가 機能主義, 혹은 CIAM運動과는 그 概念의 次元을 달리한다. 그러나 한 設計業體의 캐치프레이즈가 점차로 한 傾向을 代辯하는 개념으로 論議되는 것은 WB&A의 作業方式이 建築設計業務의 한 Vision으로서 共感되고 있다는 立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以上에서 說明한 바와같이 作業體系를 가지고 建築設計業務의 모든 內容을 一貫性을 가진 水準으로 處理해 가는 WB&A의 理想은 어쩌면 建築行為의 한 傾向, 내지는 理念으로서의 意味보다는 自由經濟主義에 바탕을 둔 建築實務에 관한 時代的 要請에 適應하기 爲한 가장 자연스러운 한 方便일른지도 모른다.

### 3. Total Design 概念의 意義

여하튼 Total Design의 設計業務의 方式이 現代建築界에 있어서 魅力的인 한 典形, 내지는 可能性의 意味로서 비추어지는 理由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첫째로 그것은 設計業務를 主軸으로 하여 大規模의 設計組織을 이루었다는 데에 緣由한다. 이 사실은 創造的인 建築家를 中心으로 한 아르미에스타일의 設計組織 概念에 관한 固定觀念을 깨는데에 意味가 있으며, 問題의 解決을 分析的으로 다루는 思考 및 行為規範과도 一脈相通하는 바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한편 하나의 建物이 工場에서 生産되는 製品처럼 協業의 方式으로 다루어질 수도 있다는 可能性인 것이며, 建築家의 役割이 創造的 藝術家로서의 個人主義의 小領域으로 부터 組織의 管理者로서의 새로운 領域으로 擴張될 수도 있다는 한 立證이기도 한 것이다.

다음으로는 수 많은 設計要素로 이루어진 大規模 建築物의 設計를 組織作業의 強點을 가지고 보다 完璧한 質을 갖는 것으로 해낼 수 있다는 데에 Total Design의 意義가 있다고 할 것이다.

建築分野에 있어서도 점차로 生産性 및 技術性的 質과 內容이 高揚됨에 따라, 이제 建築物의 價値가 創造的인 空間設計라고 하는 所謂 디자인, 側面에서만 評價될 수 있는 性質이 아니라, 얼마나 適切한 材料와 工法을 採擇하여 合理的인 構造와 外樣을 갖고 있는가 하는 側面 역시 看過할 수 없는 重要한 評價要素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Total Design의 意義는 設計의 組織化, 그 自體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組織性을 가지고 무엇을 해낼 수 있는가 하는 것, 다시 말해서 多數의 建築의 體驗과 技術의 바탕 위에 입각하여 보다 健實하고 完全에 가까운 技術水準의 建築物을 만들어 내는 데에 있다할 것이며 이것은 한편으로 建築主 및 大衆으로 하여금 좋은 建築環境의 體驗을 可能하게 한다는 社會的 名分을 共有하게 되는 것이다.

文化, 혹은 社會가 갖는 어떠한 傾向은 時代的 背景의 한 斷面으로서 나타난다. 한 傾向이 時代的 背景이 갖는 特質을 잘 代辯할 수 있을 때 그것은 時代思潮의 한 局面으로 立證지워지게 되고 그렇지 못할 때 그것은 過渡期的 流行現象으로서 곧 消滅되고 만다.

그렇다면 Total Design이라고 하는 設計方式이 어느 一角에서 共感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것은 現代建築界, 특히 發祥地인 美國 建築界가 갖는 時代的 背景의 한 斷面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建築思潮의 한 局面으로 固定될 것인가, 아니면 단지 現代建築의 混亂한 한 過程에서 일어난 事實에 不過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아직 正確한 豫測이 不可能하다. 그러나 Total Design 概念이 現代建築界에서 차지하는 그 나름대로의 建築思潮의 意義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國際主義 機能主義로부터 CIAM運動을 거쳐 다시 風土主義로의 回復을 主張하는 등의 現代建築思潮의 過程은 一見 混亂한 듯 싶지만, 그 創造의 原動力이 갖는 本質을 보면 大體로 Corbusier的인 方向과 Mies的인 方向의 두갈래의 흐름으로 크게 大別할 수가 있을 것 같다. 前者의 方向은 主觀的, 感情的建築, 即 造形的인 創作의 過程에 重點을 두었다고 할 것이며 後者の 경우는 客觀的, 理性的 建築, 다시 말해서 어떠한 構造體의 基本性質의 內部空間의 性格과 外形을 支配한다는 觀點인 것이다.

Total Design에 있어서 建築的 表現은 設計組織의 바탕에서 綜合된 見解가 하나의 建築物로 壓縮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特定의 主觀은 全體의 見解로써 다듬어질 수 밖에 없으므로 合理的, 客觀的인 表現이 支配의이게 된다. 이러한 觀點에서 Total Design은 위에 말한 現代建築의 2大 方向中的 後者 即 客觀的, 現性的建築創作의 한 자세가 될 것이라고 본다.

한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20世紀 以前의 建築家의 概念과 20世紀 以後의 建築家 사이에

WB&A는 1933년 Welton Becket가 워싱턴大学 級友인 Walter Wurdeman과 協同으로 設計事務所를 로스엔젤레스市에 開業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이들은 創造的 建築空間을 만든다는 英雄主義的 態度에서 보는데도 事業的인 수단을 발휘하여 호텔, 혹은 쇼핑센터 등의 商業用 建築物들을 建築主의 기호 및 時代感覺에 잘맞는 것으로 성공적으로 다루어냄에 따라 設計組織으로서의 成功의 기틀이 잡힌다.

이들의 建築은 建築主 및 大衆의 共感을 얻게되어 점차로 大規模의 設計業務가 確保됨에 따라 로스엔젤레스를 本社로하여 미국 5개 都市에 支社를 形成하게 되어 本格的인 設計組織의 形態로 탈바꿈하게 된다.

設計組織을 바탕으로 大規模의 建築物를 設計한다고 하는 觀點에서 S. O. M과도 同類의 位置에서 評價될 수도 있겠다. 하지만 WB&A의 경우 S. O. M보다는 그 產出된 建築物들이 갖는 建築的 表現 및 質의 摸索에 있어서 다분히 덜 慎重한 느낌을 주기는 한다. 그 理由는 試圖的인 새로운 Design의 모형보다는 大衆性에의 迎合이 일단은 보다 合理的이며 商業主義에 基盤을 둔 基本精神에도 어긋남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여하튼 WB&A는 建築的 創造의 本質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간에 大規模의 設計作業을 大規模의 設計組織으로써 遂行하는 過程의 結果로서 Total Design이라고 標榜하고 있어, 그 나름대로의 設計作業의 한 方法論이 내세워지게 된다.

이는 建築實務의 어느 부분이 아닌 總체로서의 作業, 即 Programming Planning Design, Engineering, Production, Interior Design 등, Construction以前的 設計企劃으로부터 細部設計에 이르는 普遍的인 設計作業의 全域을 設計組織의 作業形態로서 다루어냄을 의미한다.

複合的인 機能을 갖는 大規模의 現代的인 建築物를 設計함에 있어서, 細部에서 全体에 이르는 諸般의 設計要素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合理的인 分析, 生産 및 技術情報의 效率的인 活用, 圖面作成 및 各種 프레젠테이션, 構造 및 設備의 檢討 등, 龐大한 量의 記計作業이 점차로 可及的인 신속하게 處理될것을 要請받게 된다.

設計業務가 이러한 要請에 順應하기 爲해서는 建築家 個人的인 創造的인 努力뿐만 아니라 組織的인 頭腦의 活用이 不可避하게 된다. 이러한 理由에서 Total Design은 多數의 專門人으로 構成된 設計集團이 그 作業體裁의 基本이 되지 않으면 안되고 이러한 集團으로서의 作業內容을 調和있는 일의 흐름으로 調整하고, 設計業務와 더불어 惹起되는 副次的인 業務들, 即 財政的, 行政的, 法的 等の 業務要素들을 適切히 處理해 나가기 爲한 經營組織을 갖추는 것이 必須的인 일 것이다.

실제로 WB&A는 最高意思決定權者인 社長으로서의 Welton Becket를 中心으로 企劃, 디자인, 設計, 設備, 構造, 行定, 作業開發(Project Development) 등으로 分離된 體系아래 家務作業이 遂行된다. 合 部署 : : Welton Becket와 함께 部署別 家務의 統率者임과 同時에 重役陳容을 形成한다. 이러한 方式으로써 가장 細部に 屬하는 實務에서부터 組織全體의 經營의 問題점 이르기까지, 다시 말해서 作業 그 自体와 經營이 密着되게 된다.

各部署는 建築物의 計設에 必要한 프레젠테이션, 푸로덕션, 模形製作, 積算 등 諸般의 業務들이 各 作業別 專門人에게 割當되어 있어서 設計業務의 細部處理에 經驗 및 技術 精報의 密度있는 活用이 可能하게 된다. 어느 정도로 到達된 水準의 各各의 細部作業의 部署別 作業連關에 依하여 統一된 內容으로 決定지워지게 되고 決定的인 判斷과 惹起되는 副次的인 問題解決은 重役陳에 依해서 遂行된다.

各 支社들도 역시 規模 및 體系上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으나 대체로 以上の 概念에 依據하여 作業을 處理한다. 各 支社別 化表는 支社別 實務의 總率者임과 아울러 本社 傘下의 經營陳容을 構成하여, 여기에도 역시 支社別 作業과 시스템全體의 經營을 密着시키는 手法이 採用되고 있다.

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 以前의 建築家와區別되는 제일의 要件은 建築 및 環境에 대한 時代的인 要請을 누구보다도 먼저 알고 世紀를 通察하는 眼目과 그것을 現實의 建築物에 具現하는 創造力에 있을 것이다. 1960年代 以後의 建築家의 概念은 그 本質에 있어서 아직도 上記한 所謂 마스터 빌더로서의 建築家라는 解釋이 깊게 뿌리박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作家的 英雄主義가 아직까지 우리의 見解를 支配하고 있다고 보겠다.

이와같은 觀點에서 Total Design에 있어서의 建築家象은 다분히 既存의 固定觀念에서 벗어난 새로운 可能性을 示唆하는 바가 있는 것이다.

建築家個人的 創造的 理念을 具現한다는 態度보다는 設計頭腦組織의 共同努力으로써 바람직한 建築環境을 만들어낸다는 極斷的인 客觀主義에 있어서는 建築家가 무엇을 創造하는가하는 물음보다는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이 우선하는 것이다.

#### 4. 韓國建築界에 있어서 Total Design 의 意義

여러가지 어려운 與件에서 成長해 온 韓國의 現代建築界에서도 作家的 英雄的 자세를 止揚하고 建築 및 都市環境의 質的 高揚을 위하여 共同의 努力이 要請된다고 하겠다. 建築物이 環境造成의 一部로서의 意味보다는 오히려 利潤取得의 手段으로 轉落되어 都市環境公害를 誘發하는 動機가 되고 있다. 惡化를 驅逐하기 위한 良貨로서의 建築環境의 質的 高揚을 위한 建築家 共同의 努力을 위해서 Total Design의 設計方法論은 韓國建築界의 實情에 맞도록 模索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Total Design의 方法論을 韓國建築界의 한 指票로서의 可能性으로 생각하는데 있어서 看過해서 안될 사실이 있다.

그것은 建築環境의 質的 水準을 높이고 韓國建築의 傳統性을 定立한다고 하는 建築家 共同의 理念이 前提가 되지 않는 이상 오히려 設計業務의 組織的 低質化를 가져올 우려마저 있다고 할 것이다.

問題는 組織化 그 自体에 있는 것이 아니고 組織化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建築家의 良織인 것이다.

이러한 建築家의 良織의 바탕에서 設計業務가 綜合的 設計組織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그 設計組織의 背景아래 建築 및 都市環境의 質的 向上을 爲한 先導的인 努力이 主導될 때 建築家は 社會的 指導者로 自負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韓國의 建築的 傳統性이 定立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Total Design的인 設計方法論을 우리의 것으로 導入하고자 하는 試圖가 비로소 그 意義를 갖게 될 것이다.